

“대학생 독서량 턱없이 부족”

동원대학 출판미디어학과 설문조사 발표

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량이 일반 성인 평균 독서량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동원대학 출판미디어과가 지난해 10월 한 달간에 걸쳐 수도권 소재 5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 교재를 제외한 1개월 평균 독서량이 1권 미만으로 2004년 ‘국민 독서 실태 조사’ 결과와 비교할 때 성인의 한달 평균 독서량(1.3권)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. 전체 학생의 36%가 최근 3개월간 2~3권의 책을 읽었다고 답한 반면, 같은 기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학생도 전체 응답자중 세 번째로 많은 16%를 차지, 대학생들의 독서 편차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독서 시간에 있어서도 전체 74%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3시간 이내, 하루 평균 15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 이것은 중고등학생(약 48분)과 성인(약 32분)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. 대신 대학생들은 대부분 인터넷(25%)과 게임(23%)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, TV(14%), 수면(9%), 음주(8%), 기타(3%)가 그 뒤를 이었다.

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느냐는 문항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%가 소설을 읽는다고 답해 특정 분야의 도서에만 독서 비율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소설과 비소설을 합친 비율은 69%로, 다시 말해 독서를 하는 대학생 10명 중 약 7명 꼴로 문학 도서만 읽는 셈이다. 이에 반해 인문 사회 과학 도서(5%), 예술 관련 도서(2%), 자연 과학 도서(1%) 등에 대한 독서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는 지난 2004년 ‘국민 독서실태 조사’ 결과 일반 성인과 학생 모두 약 40%정도가 문학 도서를 읽고 그 외 60%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골고루 읽는 것으로 나타났던 점과 비교해 볼 때 불과 1년 사이 분야별 독서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.

책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대학생들은 ‘제목과 겉표지 등 표면적인 것을 보고 고른다(46%)’는 의견이 ‘작가의 지명도와 출판사(22%)’등을 보고 고른다’보다 2배가 넘게 많아 표피적이고 수동적으로 도서 목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. 도서 선택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베스트셀러 목록과 주의의 권유(36%)가 가장 높았고, 광고(6%), 서평 및 독서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은 저조했다.

특히 대중 매체를 통해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접해 본 대학생들은 많았지만(72%) 접해본 대학생들 중 41%의 대학생들만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효과면에서 이들의 취향과 기호를 살리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.

〈김치원기자〉

